

물질 우상 시대의 청년들에게 던지는,
이재철 목사의 청년서신
그 세 번째 화두!

내게 있는 것

"청년의 달 5월에 찾아옵니다!"

홍성사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2003년 4월

Book News

책의 선물

팬타지 소설을 능가하는 재미와 '영적 도전'!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에 의해 극찬을 받은 기독교 소설의 새 지평



L E F T B E H I N D

레프트 비하인드

그날 이후 남겨진 사람들

팀 라헤이·제리 젠킨스 지음 | 홍종락 옮김 | A5신변형 | 504면 | 11,000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자칫 우리를 감각적인 공포만으로 뒤흔어서 심한 지적 거부감을 주거나 우리의 신앙을 비현실적인 형태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오랫동안 기독교에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했던 비기독교인으로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초신자인 내가 휴거를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거부감은 적지 않았다. 아마도 우연한 계기가 아니었다면 '휴거' 얘기인데다가 '대중소설'이라고 알려진 이 소설을 나 스스로 찾아 읽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내 선입견과는 달리 이번에 출간

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남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진지한 신앙인으로 회심하게 되는 경로들이 부각된다. 예전대 불신자였던 라이언이 악당에게 쫓기는 경험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을 때, 반즈 목사는 그가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고백 자체만을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 회심이 온통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는지 점검하고자 하는 진지함을 보여 준다. 휴거의 사건이 인간의 멸망을 위한 예비가 아니라 진정한 회심과 영적 성숙에 닿아 있는 것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소설은 대중소설의 형식을 과격하고 공허한 '전도' 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일반인들

그려내는 개리커처처럼, 불신자였을 때의 나와 내 친구들의 모습이 참 많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을 발견하며 재미있었다. 인물들의 말과 행동, 사건의 진행경과들(기내에서 만난 친절하고 유능한 기사가 휴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습 등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에 대해서도 은근히 다루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성향의 불신자들에 대응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잘 포착해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대해 쉽고 바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진지한 불신자들이나, 열정적이지만 무언가 주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듯한 '기독교인'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권할 수 있을 만한 책이 아닐까 한다.

글●최강미

연세대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과정에서 현대문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동안교회 청년7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줄거리

어느 날 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옷가지와 장신구만 남긴 채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다. 일순간 전 세계는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절망에 빠진다. 해답을 찾아 헤매던 저드, 비키, 라이어넬, 라이언은 반즈 목사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사라진 사건이 휴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을 데려가 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하는 결단의 시간을 맞는다.

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한편, 온갖 음모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젊은 지도자 카르파티아를 만난 한 기사가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팀 라헤이 Tim LaHa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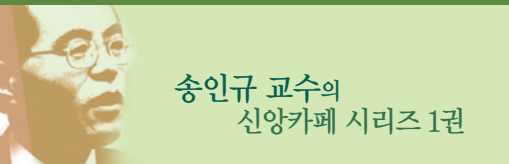
저명한 저술가이자 목사로서 카운슬러, TV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밥 존스 대학을 졸업하고 웨스턴 보수 신학 세미나에서 신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패밀러 라이프 세미나, 더 프레트트리브 리서치 센터를 비롯해 두 개의 고등학교와 크리스천 헤리티지 대학을 설립했다. 저서로는 《목회자가 타락하면》, 《성령과 기쁨》 등 여러 분야에 걸쳐 50여 권이 있다.

제리 B. 젠킨스 Jerry B. Jenkins

시카고의 무디 성서연구회 부회장을 지냈고, <무디>지의 편집장으로 오랫동안 일했다. 《Out of the Blue》, 《Miracle Man》, 빌리 그레이엄의 전기 《Just I am》 등을 비롯해 자서전, 결혼과 가족 이야기, 아이들과 어른을 위한 소설 분야의 책 100여 권을 썼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퍼레이드>와 같은 정기간행물에서도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지면안내

주목할 만한 책 2



송인규 교수의
신앙카페 시리즈 1권

성 3부작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성》 외

믿음의 어린이책 2



이 책을 말한다



윌트 할머니의 선물

제프 브럼보 글·게일 드 마렌 그림/양혜원 옮김/양정/울림/12,000원

"술술 책장을 넘기다 책을 덮는 순간 한줄기 깨달음에 미소짓게 되는 우화다.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듣는 듯 친숙하게 다가온 책은, 매우 색다른 소재와 접근법으로 나눔의 즐거움을 웅변한다. 윌트 조각을 연상시키듯, 여러 컷으로 잘게 쪼개진 화려하고도 익살스러운 그림들이 상상력을 한껏 부풀린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왕이 할머니의 지혜로 나눔의 즐거움을 깨우치는 과정이 훈훈하다." -황수정 기자/대한매일



우피무라 간조 회심기

우피무라 간조 지음/양혜원 옮김/양정/320면/11,000원

"한 인간의 치열한 자기 성찰의 과정과 회심을 향한 구도의 여정을 보여 준다. 면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목적인 예시에, 과연 어떤 작가가 이렇게 통렬하게 자아 찾기 과정을 거쳤다 자부할 수 있을까. 말하기는 쉬워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기 자신을 세심한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의 신비로움과, 나아가 그것이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책이다." -한겨레신문 '탐나는 책'



세기를 뒤흔든 전도자 조지 휘트필드

J. C. 라일 지음/홍종락 옮김/256면/7,500원

"이 책의 교육적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의 '실재성'에 대한 본능적 확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휘트필드의 설교는 대단히 논리정연하고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읽고 나면, 무미건조한 논리와 끊임없이 요동치는 감정의 양극단을 모두 넘어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고백의 진실성에 대한 '동물적 확신'을 경험하게 된다." -홍종락/번역가

재앙 소설의 완성판이자 내일의 묵시록

-워싱턴 포스트

레프트 비하인드

그날 이후 남겨진 사람들

50,000,000부 이상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Left Behind 시리즈 한국 상륙!

요한계시록에 바탕을 둔 재앙 소설로, 종말 신앙을 스릴러 형식에 담아내는 데 성공한 작품. 성인판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며,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위시한 각종 언론의 서평에서 '기독교 소설'이 갖는 한계점을 뛰어넘은 걸작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법정 스릴러의 존 그리샴처럼 팀 라헤이와 제리 젠킨스는 기독교 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 타임 Time
"작가의 문체에 사로잡힌 독자들은 소설의 다음 이야기가 알고 싶어 마음을 졸이며 책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걸스들린 듯 책을 탐독하게 된다." 크리스천 리테일링 Christian Retailing

팀 라헤이·제리 젠킨스 지음 | 홍종락 옮김 | A5신변형 | 504면 | 11,000원

홍성사가 펴내는 기독교 소설선

땅끝에서 오다 김성일 지음 | 360면 | 8,000원

땅끝으로 가다 김성일 지음 | 360면 | 8,000원

야훼의 밤(전4권) 조성기 지음 | 각권 180면 내외 | 각권 4,500원

요셉의 회상 자유철 지음 | 252면 | 6,500원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홍성사

송인규 교수의 신앙카페 시리즈

1

목회자·직분자·청년 모두를 위한 예배 교육 교재!

저자가 말하는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이 책은 예배학 입문서나 예전(禮典, liturgy)에 대한 해설서가 아닙니다. 또 전통적 의미에서의 예배 갱신을 위한 안내서도 아닙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때 행하거나 이루어지는 여러 순서와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지?’ ‘성서교독은 뭐야?’ ‘사도신경은 꼭 외워야 하나?’ ‘대표기도 때 나머지 교인들은 뭘 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 ‘헌금을 꼭 예배 시간에 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그는 자신을 교회로 인도한 장로 친구에게 찾아가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로 친구는 머뭇거리고만 있지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이 말만 되뇌었습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 놓고 질문한 사람은 자네가 처음인 것 같군. 실은 나도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었지. 하지만 다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지냈어. 자네도 금방 익숙해질걸세.”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반응을 단지 어떤 한 사람에게서

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보에 적혀 있는 현재의 예배 순서가 어떻게 하여, 무슨 목적으로 정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반 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직분자들까지,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이 책을 마련했습니다. -머리말에서

※《송인규 교수의 신앙카페》 시리즈는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신앙생활 기본에 대해 쉽고도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자 개설된 오프라인 카페입니다. 뒤이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가제), 《신앙생활의 근본 모습》(가제)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송인규 지음 | 믿음의 글들 197 | A5신변형 | 7,800원 ※4월말 출간예정



남자, 여자, 부모도 잘 모르는 <성 3부작> 시리즈

결혼 전에 읽으면 예방이 되고, 결혼 후에 읽으면 처방이 되는 책!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성 아치볼드 D. 하트 지음 | 유선명 옮김
여자도 잘 모르는 여자의 성 아치볼드 D. 하트 외 공저 | 김종철·박진숙 옮김
부부도 잘 모르는 부부의 성 조셉 딜로우 지음 | 김선형·김용교 옮김

저자가 말하는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성》

“나는 25년 넘게 남성들을 연구하면서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성을 이해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든 이들은 한결 같이 혼돈에 빠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섹스를 주제로 이야기할라치면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죄의식으로 용서를 얻고 싶어했다. 강의 후에, 세미나 중에, 혹은 상담치료 실이나 사적인 대화에서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거의 성문제, 성적 갈등, 성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들은 성에 대해 정상적이고 건전한 것과, 병적이고 기능장애인 것을 구별할 줄 몰라 갈등하고 있었으며, 상당수는 자신의 왕성한 성욕을 무언가 심각한 이상현상이라 믿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성도착자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했다.

남성 호르몬의 홍수에 익사하지 않으려고 목을 쳐들고 있는 기분으로 사는 이 남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욕의 억제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이 기쁨과 생기의 근원이 아니라 수치심과 좌절, 분노의 원인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런 투쟁은 이 남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으며, 삶의 충족감을 박탈하고 결혼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남자의 성욕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거나 적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나곤 한다. 나의 임상경험에 따르면 우리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릇된 죄책감은 거의 대부분 선풍한 남성의 성생활에 피해를 주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많은 남성들이 이 그릇된 죄책감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 성의 배후에서 파괴적 영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책은 성도덕을 논하는 책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

진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할아버지인 나의 가치관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순 없겠지만, 나의 의도는 어떤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행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성에 관련된 죄악들을 근엄하게 꾸짖는 질책을 기대하는 독자들은 실망하겠지만, 내가 아는 한 대부분의 선풍한 남성들은 이미 성문제에 관해 자신을 지나치게 질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머리말에서

■이 책의 특징

-인간의 성욕 이면에 있는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성문제로 그 해결법을 알 수 있다.

-남녀의 성적 차이를 알므로 부부나 연인 안에 있는 성 갈등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올바른 성지식을 통해 왜곡된 죄책감에서 벗어나 성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 책이 유익한 분들

- ‘내가 과연 정상인가?’ 하는 고민을 한번쯤 해 보신 분

-성 문제를 상담할 대상이 없어 혼자 고민하는 분

-제대로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

-성적 상처와 유혹에 노출된 청년 세대를 지도하는 청년 사역자들

-신혼 부부나 결혼을 앞둔 커플, 성문제로 고민하는 기혼 부부들

※5월 출간예정



물질 우상 시대의 청년들에게 던지는, 이재철 목사의 청년서신 그 세 번째 화두!

내게 있는 것

“청년의 달 5월에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홍성사에서 펴내는 믿음의 어린이책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빌 게이츠
이제 아이들에게, TV는 끄고 믿음의 책을 켜 주세요!

★5세 이상

클트 할머니의 선물

“이 책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유쾌한 우화다.” 김윤덕 기자/조선일보
“필트 조각을 연상시키듯, 여러 컷으로 잘게 쪼개진 화려하고도 익살스러운 그림들이 상상력을 한껏 부풀린다.” 황수정 기자/대한매일 제프 브럼보 글·게일 드 마켄 그림/양혜원 옮김/양장/울컬러/12,000원

토비아스의 우물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에 담아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맥스 루케이도 글·더글러스 클로바 그림/양혜원 옮김/양장/울컬러/32면/6,000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성경적 창작 동화.
※ECPA 골드메달리온 상 수상, 제19회 기독교출판문화상 번역상 수상
맥스 루케이도 글·밋첼 하인즈 그림/양혜원 옮김/양장/울컬러/32면/6,000원

나는 하나님이 궁금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풀어가는 하나님 이야기. 아이들에게 철학적 사고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힘을 길러 준다. 안젤리카 슈탈퍼 글·베티나 핀켄베르크 그림/송순성 옮김/울컬러/32면/6,000원

초등 저학년 이상★

성경전과-신·구약전2권

10년간 수집한 600여 점의 사진과 그림자료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비주얼 성경! 셀리나 헤이스팅스 글·에릭 토마스 그림
최원준 옮김/컬러·양장/각권 152·184면
각권 19,000·24,000원

어린이 낮은 데로 임하소서

기독교출판사상 유례없는, (낮은 데로 임하소서) 100쇄 출간 기념작, 우리나라의 일급 동화작가와 삽화가의 손길을 거쳐 나온, 믿음의 어린이를 위한 순수 우리 고전.
조성자 글·신가영 그림/이창준 원작
A5신변형/152면/6,500원

만화 성서대전-신·구약전4권

슬라이드처럼 펼쳐지는 만화를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 준다.
짐 파게트 글·리비 워드 그림
최원준·신부경 옮김/컬러/각권 4,800원

